

성명서

우리들은 일본군인들에게 강제로 끌려가 군대위안부로 강요당하면서 말로 표현 못할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모두 현지에서 죽고 다수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50년의 한을 안고 일본정부를 상대로 정당한 배상을 받고자 전 세계적인 언론을 배경으로 한, 일간의 마지막 숙제를 풀기 위하여 직적 참여하고 있는 현재 생존해있는 강제군대위안부 피해자대책협의회 중앙회 회원입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신대대책협의회와 태평양유족회에 가입을 하여 일본정부의 지난 역사의 만행을 밝히는데 앞장을 섰지만 결국은 우리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팔아 모금운동을 벌여 피해자에게는 단 한푼도 주지 않고 각 단체들이 착취하고 그나마 일본의 학끼리회의 우스끼 게이고 라는 자도 덩달아 우리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각종 이유로 모금 착취하기에 우리들은 모두 단체를 자발적으로 떠나와 피해자들끼리만의 협회를 직접 결성하여 1993년 11월 25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정부를 상대로 직적 협상을 위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정부는 말로만의 사죄를 되풀이했고 한국인 강제군대위안부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기에 우리 피해자들은 지난 1월 25일 일본 대사관앞에 허탈복자걸을 시도했으며 이후 자걸을 시도했던 피해자 한분은 곧바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일본 전역 어디.....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에 대한 보다 빠른 후속조치가 없을시에는 활복자걸로 전세계에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자 했으나 1994년 3월 24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일본방문에 있어서 입장과 후속조치에 대한 것에 대하여 우리 피해자들은 기대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우리 피해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이를 계기로 일본에 직접 들어갈 것이며 일본정부의 태도 여하에 따라 강제군대위안부 피해자들의 행동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정부도 우리 피해자들에게 국민을 한사람으로 생각해야 하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피해자의 의사는 전혀 무시한 채 정부차원에서 피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과연 무엇을 해 주었는가에 대해서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피해자들을 빙자해서 일본 등지를 다니며 구걸행위를 하고 있는 각 단체는 우리 피해자들을 더이상 들먹이지 말고 그만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지 거지는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 피해자들을 빙자해서 일본등지를 다님 증언 집회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거두어 들여 피해자에게는 단한푼도 들어오지 않는 사기 행각으로 대한민국 이라는 조선민족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지도층이나 언론이나 지식인들은 귀도 없고 눈도 없습니까?

우리 피해자들은 앞으로 언제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인간 회복을 위한 조급한 조바심에 초연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1994년 5월 3일

실제 피해자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현생존강제군대위안부피해자대책협의회 중앙회
대표 김복선 의 회원 전체일동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 1동 134-28(TEL 02-207-9497 / FAX 02-207-9467)